

■ 제 1 주 제

북한언론이론의 이해와 남북 언론보도의 실태

김 영 주

(경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

북한언론이론의 이해와 남북 언론보도의 실태

김영주 (경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

I. 서론 : 김여정의 선전선동부 장악과 북한언론 관행의 변화

북한의 수령 김정은(국무위원장)의 등장과 그의 여동생 김여정이 선전선동 활동에 관여하면서 북한언론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백두혈통’으로 2017년 10월 7일에 열린 제7기 제2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 된 김여정은 선전선동부 부부장(김기남 선전비서 / 리제일 제1부부장)에서 제1부부장(박광호 선전선동부장)으로 승진하면서 북한언론에 변화의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했다. 예컨대, **보도적 기능**에서 중시하는 **사실성과 신속성**(예컨대, 양강도 수해, 평양의 주택건설 붕괴, 김정은의 다리 저는 모습 등)이 강화되었다. 또한, 북한정권 수립 70주년(2015년) 8월 15일을 맞이하여 로동신문, 민주조선, 청년전위, 평양신문 등 이른바 ‘북한의 4대 신문’에 **컬러화**를 단행하는 한편, 체육전문매체인<체육텔레비죤방송>(토, 일요일 19~22시)도 설립했다.

미국의 언론학자인 윌버 슈람(W. Schramm)에 따르면, “공산주의 국가 체제는 ‘힘’(power)과 ‘설득’(persuasion)이라는 양쪽의 수레바퀴에 의해 굴러간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이 군사력과 경찰력을 기반으로 하는 ‘강제’(총대)와 더불어, 언론기관을 주축으로 하는 ‘설득과 동의’ (붓대)를 통해 그들의 체제를 유지한다는 의미이다. <광명백과사전7>(2011, 552)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주체의 출판보도사상’과 ‘붓대중시사상’을 나란히 병렬하면서, “혁명은 사상의 힘으로 전진하며, 사상의 위력은 붓대에 의해 담보된다. 인민대중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영웅적 투쟁으로 고무추동하기 위해선 붓대를 중시하고 그 역할을 높여야 한다”며 **붓대중시사상**을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다.

북한은 그들의 헌법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임을 표방하고 있지만, **전체주의 국가적** 요소가 많은 나라다. 이뿐만 아니라, ① 유교적 가족국가 (봉건적 왕조국가), ②

병영국가(군대국가; 유격대국가), ③ 종교국가, ④ 극장국가의 특성도 함께 지니고 있어 그들의 실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북한당국은 북한식 사회주의나 수령의 위대성을 선전할 필요성이 있으면 선전책자를 국내·외에 수십만 부씩 살포하는가 하면, 특정한 주제와 관련되는 자료(문건)는 수십 년 동안 일체 유출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북한의 폐쇄성, 돌출성, 의외성 때문에 정확한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1960년대 초반 김일성의 지시로 시작되어 김정일이 고수했던 ‘공정적 모범을 통한 감화교양’(‘부정·비판을 통한 교양’보다 ‘**공정감화교양**<공정을 통한 감화교양>이 조선의 근로인민에게 알맞고 효율적인 교양방법이다)이 정책수행상 문제가 있는 경우 언론매체를 통해 **신속하고 공개적으로 비판**(예컨대, 평양근교의 자라양식장 및 식목 현지도)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환언하면, 지금까지의 북한당국이 조직활동의 일환으로 전개했던 생활총화, 비공개회의 및 김일성·김정일의 저작집 등에서만 이루어졌던 **비판활동**을 인민대중들에게 대중매체를 통해 공개하는 전략으로 바꾸겠다는 것을 뜻한다.

이 글의 목적은 김정일의 등장과 함께 출판된 <광명백과사전7>(2011)의 내용(북한의 교육, 어학, **출판보도** 등을 언급)을 통해 북한언론이론의 변화를 감지하고, 북한매체의 대남보도의 특징을 파악하는 한편, 남한의 언론매체에서 취급하는 북한보도의 문제점을 이론적 차원에서 고찰해 보는데 있다.

II. 본론 : 김정은 시대 북한언론이론의 변화

1. 북한언론의 기능론과 일반원칙, 기본성격과 언론활동의 근본원칙

해방 직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북한언론의 기능론은 ① 레닌의 언론기능론(집단적 선전자·선동자·조직자)을 고수하다가 1960년대 초반부터 김일성이 선전선동자적 기능과 조직동원자적 기능에다가 ‘**문화교양자적 기능**’을 새롭게 첨가하였다(② 김일성의 언론기능론). 1974년 <5·7문헌>을 통해 ③ 김정일의 주체적 출판보도사상이 완성되었다. 이것은 조직동원자(경제조직자)적 기능과 문화교양자적 기능은 그대로 가져오고 ‘선전선동자 기능’을 대내적·대남적·대외적 차원(대내적 차원의 선전선동자적 기능을

‘사상교양자적 기능’, 대남적 차원에서 ‘대적투쟁과 대적언론전의 강력한 무기로서의 기능’, 대외적 차원에서 ‘대외선전과 외교수단으로서의 기능’)으로 나누어 5가지로 정리한 것이다(김영주·이범수, 1999, 92~96).

한편, **주체적 출판보도사상(주체언론철학)**이 37년 동안 지속되었으나,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들어서자 ‘문화교양자적 기능’을 삭제하고 그 대신 ‘**보도적 기능**’을 출판보도물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적 기능이라며 전면에 내세우는 새로운 언론 이론(④ 김정은의 언론기능론; **보도적 기능, 사상교양자적 기능, 조직동원자적 기능, 대외선전적 및 외교적 기능, 대적언론전의 기능**)을 제시하였다(<광명백과사전7>, 2011, 558~562). 이것은 북한당국이 ‘정론성’(해설·처방기능; 상관조정기능)도 중요하지만 ‘보도성’(환경감시기능; 정보전달기능)을 우선적으로 담보하지 않고서는 정론성의 효력도 높일 수 없다는 자각에서 나온 것처럼 보인다. **북한당국은** 보도적 기능을 중시한다고 하면서 “부르주아 출판보도물은 인간의 생물학적 본능(예컨대 애착, 물욕, 성욕 등)을 자극하는 흥미성 위주로 가지만, 그들의 당적 출판 보도물은 인민들의 올바른 생활과 투쟁을 이끄는 데 도움(예컨대, 수령의 혁명활동, 현지도와 대외활동, 근로자들에 대한 감사 및 로작발표, 수령에 대한 흠모자료 등)이 되는 **유익성 위주로** 간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에선 신문, 잡지, 방송, 통신 등을 통해 실현되는 언론활동을 ‘사회정치활동’으로 규정하고 철저하게 ‘**계급성(당성)**’을 띤다고 전제하였다. 따라서, 언론매체는 ‘특정한 계급이나 당, 사회적 집단의 사상과 이익을 대변하는 사상적 무기로 복무한다’고 인식하면서, 근로인민에게 복무하는 당적 언론(혁명적·진보적 언론)과 착취계급에게 복무하는 반동적 언론(반인민적·보수적 언론)으로 양분된다고 보았다. 북한의 언론학자들은 북한언론을 전자로 간주하고, 남한언론을 후자로 간주한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언론의 주요가치인 ‘**무당성**’(초계급성; 불편부당성)과 한 짝을 이루는 ‘**객관성**’을 ‘**부르주아적 객관주의**’라고 폄하하고, 자신들의 언론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로동신문 사설을 통해 북한언론의 본질과 성격을 살펴보면, 원론적 차원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조금씩 수정되었다. ‘당의 예리하고 전투적인 사상적 무기’나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중요한 수단’,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 ‘당과 인민의 대변자’, ‘당정책의 옹호자·실천자’라는 개념들은 이미 1960년대에 형성되었으며

지금까지 변함없이 내려오고 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계급투쟁의 예리한 무기’, ‘선진사상의 옹호자·전파자’, ‘사회여론의 대변자·조직자’라는 개념이 덧붙여졌으며, 1980년대는 ‘사회개조·인간개조하는 전위기수’, ‘대중의 친근한 교양자’라는 개념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1990년대는 ‘대외선전·대적투쟁의 무기’, ‘김정일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하기 위한 혁명적 무기’ 등이 추가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 ‘당의 노선과 정책의 옹호자·선전자’, ‘당의 목소리와 입장을 대변하는 사상적 무기’ 등으로 정리되었다.

‘주체언론’으로 요약되는 북한언론의 성격은 김정일의 5·7문헌(<우리 당의 출판보도물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에 이바지하는 위력한 사상적 무기이다>, 『김정일선집 4』, 1974. 5. 7)에서 처음 제기한 ‘주체적 출판보도사상’ (주체의 출판보도사상리론)의 핵심내용으로서, ‘새형의 주체의 출판보도물’과 ‘김일성주의 혁명적 출판보도물’ 등 2가지다(김영주, 1998, 445). 전자는 철두철미하게 주체사상으로 관통되어 있으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생명으로 삼고 있음을 뜻하며, 후자는 위대한 김일성주의를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있으며 김일성주의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뜻한다. 1974년부터 2010년까지 이 2가지를 일관성 있게 ‘주체언론의 성격’으로 고수하다가, 2011년에 나온 <광명백과사전7>(555)에선 ‘새형의 주체의 혁명적 출판보도물’ 하나로 통합했다. 이것은 ‘북한의 출판보도물이 김일성·김정일이 개척하고 발전시킨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는 것을 자기의 숭고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의미이다.

김정일은 1974년에 발표한 <5·7문헌>에서 북한언론의 임무·사명을 3가지로 정리하였다. 그것은 ①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김일성주의자로 만들고(사회성원들을 당과 수령에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교양개조하고), ② 사회를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는데 기여하며(경제·문화·사회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여 사회주의의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는데 이바지하며), ③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 세계혁명의 승리를 이룩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이바지(조국통일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데 있다(김영주·이범수, 1998, 55~58; <광명백과사전7>, 556~557)고 보았다.

정치·사상적 차원에서 사상교양자적 기능을 통해 ‘참다운 김일성주의자’나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둘째, 경제적 차원에서 조직동원자적 기능을 통해 ‘공산주의의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거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데 기여하며

셋째, 정세적 차원에서 대적투쟁·대외선전의 무기로서의 기능을 통해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 및 세계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북한언론의 임무와 사명이라 규정하였다. 여기서 언급된 ‘김일성주의자’(이른바 ‘주체형의 혁명가’)는 주체사상을 유일한 세계관으로 삼는 사람이며, 수령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수령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신조화하며 당의 방침을 집행할 때 ‘무조건성의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북한언론의 일반원칙은 레닌에 의해 주창된 개념을 약간 수정한 것이며 보도활동의 근본원칙은 김정일에 의해 처음 주창되었다. 북한은 레닌(『What is to be done?』, 1902; <Where is to begin?>, 『Iskra』 (4호), 1901. 5)이 주창한 당적 원칙과 대중적 원칙, 진실적 원칙 등을 참고하여 ① 공산주의적 당성과 노동계급성(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강조하고 노동계급의 근본이익을 옹호, 관철함), ② 인민성과 대중성(인민대중의 이해관계와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출판보도활동에서 광범한 대중을 적극 참가시킴), ③ 진실성과 전투성(공산주의적 객관성으로서 근로인민대중들의 계급적 입장을 반영하며, 계급적 원수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의 비리를 예리하게 폭로함) 등을 제시하고 있다(조형창 외, 1982, 11). 이 일반원칙 3가지는 북한당국이 <광명백과사전> (555~556)이 나오기 전까지 중요시하며 언급하였지만, 확실한 이유는 알 길이 없지만 진실성·전투성을 슬그머니 제외하고 있다.

출판보도활동의 근본원칙에 대한 내용은 김정일의 <5·7문헌>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그것은 ① 주체의 원칙(언론활동을 조선혁명의 이익과 인민의 요구와 지향, 북조선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인 신념과 판단에 기초하여 풀어나감), ② 당의 유일적 지도 원칙(모든 언론인들이 당 중앙의 유일적 지도 밑에 한 사람 같이 움직여야 하며 원칙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을 오직 당 중앙의 결론에 의해서만 풀어나가며 당 중앙에서 일단 결론이 난 문제는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는 기풍을 세워야 함), ③ 종자를 바로 쥐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는 원칙(기사나 편집물의 사상적 알맹이를 틀어잡고 전격적으로 밀고 나가 최단 기간 내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함) 등 3가지였다(김영주·이범수, 1998, 60~62).

<광명백과사전>(562~563)에선 ① 당의 유일적 지도원칙, ② 주체의 원칙, ③ 인민성의 원칙(군중의 심리와 사상감정에 맞게 쓰며 인민들이 흥미를 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속적·생활적으로 씀), ④ 창조적 원칙(경직된 사고와 관점, 구태의연한 일본새를 버리고 편집물들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참신하고 생동하게, 창조적으로 만

들) 등 4가지로 수정했다. 전자 3가지가 모두 사상성(당, 주체사상, 종자 등)과 관련된 것이라면, 후자는 사상성에 **인민성과 창조성**을 첨가한 것이다.

북한은 언론인[출판보도인]을 ‘**사상전선의 전초선에 서있는 당의 붉은 문필전사**’로 규정하였다. 1960년대 로동신문 사설에서 언론인의 성격을 위와 더불어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적극적인 정치활동가’, ‘당정책의 적극적인 옹호자·선전자·관철자’로 규정하다가 1970년대에는 ‘주체적 출판보도사상’에 입각하여 ‘수령께 충직한 문필전사’,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이론적으로 옹호·보위하는 친위대·근위대’와 ‘김일성주의 정수분자’ 등을 새롭게 추가하였다(『로동신문』, ‘65. 11. 2.; ‘71. 11. 1.자).

1980년대에 이르러 ‘정치사상적·기술실무적으로 준비된 주체형의 혁명적 문필가’, ‘정치적 식견과 안목, 풍부한 지식과 문필기량을 소유한 정치활동가’, ‘당과 수령만을 믿고 싸워나가는 강毅한 혁명투사’라는 개념을 추가하였으며, 1990년대에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영원한 붓과 마이크’, ‘선동나팔수’, ‘당의 영원한 동행자·충실한 방조자·훌륭한 조언자’, 2000년대 이후에는 ‘선군의 붓대로 혁명의 수뇌부를 제일선에서 옹호하는 주체형의 문필가’, ‘당의 충실한 대변자’, ‘**당사상전선의 전초병**’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로동신문』, ‘80. 11. 1.; ‘90. 11. 1.자; <광명백과사전>, 2011, 573)(<표1> 참조).

2. 북한언론매체의 기사 속성과 내용

북한에서 기사는 ‘기자들이 신문과 통신, 잡지들에 써 내보내는 글’(<광명백과사전>, 2011) 또는 ‘출판보도물에 실리는 보도적이며 정론적인 글’(『조선대백과사전(1)』, 1996)로 개념을 규정하였다. 북한의 신문학 개론서 역시 ‘신문, 방송, 통신 등의 출판보도물에 실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주로 기자들이 쓴 모든 글’(『신문기사론』, 1979, 9) 또는 ‘기자를 비롯하여 노동통신원 및 열성필자들이 보도선전을 위하여 쓴 글’(『신문학개론』, 1989, 92)로 개념을 규정하였다.

북한언론매체의 기사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정론성과 보도성을 비롯하여 호소성과 전투성, 시사성과 통속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정론성’과 ‘보도성’은 출판보도물의 생명선이다(리응필, 1979, 10~12; <광명백과사전>, 2011, 564). 보도성은 ‘새로운 소식을 신속, 정확하게 그리고 광범한 대중 속에 널리 알리는 속성’(리응필, 1979,

12) ‘사회정치적으로 의의 있는 새로운 소식을 민감하게 포착하여 광범한 사람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알려주는 기사의 기본속성’(엄기영, 1989, 9)을 의미한다. 보도성은 여러 가지 하위개념을 가지고 있다. 『신문기사론』(리응필, 1979, 12~13)에서는 ‘사실성’, ‘시사성’, ‘신속성’, ‘광범성’을 열거하였으며, 『신문학개론』(엄기영, 1989, 9)에서는 ‘소식성’, ‘시사성’, ‘신속정확성’을, <광명백과사전7>(565)에선 시간성, 계기성, 시기성, 시사성 등을 열거하였다. 한편, 부르주아 출판보도물에선 보도지상주의를 고창하면서 이른바 ‘보도경쟁’을 일삼는 나머지 심지어 거짓보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북한의 출판보도물에선 철두철미 보도의 신속성과 함께 정확성, 진실성, 과학성, 친절성을 보장함으로써 주체적 출판보도물로서 갖추어야 할 보도성을 최상의 높이에서 구현한다고 강변하였다(<광명백과사전7>, 565).

정론성은 기사의 가장 본질적이고 고유한 속성으로서 ‘사회정치적으로 간절한 문제에 대한 명백한 주장과 견해를 내세우는 속성’(리응필, 1979, 10)이다. 이 정론성은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예리하게 분석, 판단하는데서 표현된다. 즉, 모든 문제에 대한 ‘정치적 분석과 일반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분석과 일반화’는 ‘객관적 현실의 사건과 사실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면별로 분류하여 당적 입장에서 고찰한데 기초하여 그가 속한 전체적 입장에서 공통적인 정치적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북한의 출판보도물 가운데 신문은 고유한 성질인 보도성과 정론성을 기본속성으로 하고 그것을 가장 강하게 체현하며, 잡지는 주로 선전과 연구에 복무하기 때문에 보도성과 정론성의 구현에선 제한된다. 방송은 사상문화 교양수단으로서 보도성·정론성과 함께 사상성, 예술성, 문화성을 종합적으로 체현하며 통신은 보도 전문적인 매체로서 보도성을 강하게 체현하는 반면에 정론성은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구현한다. 따라서, 보도와 교양, 론평의 위력한 수단으로서 보도성과 정론성을 가장 질게 체현하는 신문이야말로 출판보도물의 중추를 이룬다고 천명한 것이다(<광명백과사전7>, 577).

북한 언론학자들은 언론매체가 ① 정치사상 교양자료(정치사상선전), ② 경제교양자료(경제선전), ③ 문화교양자료(사회문화선전), ④ 정세교양자료(정세선전) 등 4가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형창·리준하, 1982, 37~54; <광명백과사전7>, 2011. 578~579). 이것은 북한언론의 내용이 언론의 구체적 기능인 ① 사상교양자적 기능, ② 조직동원자적 기능, ③ 문화교양자적 기능, ④ 대적투쟁 및 대외선전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언론매체의 내용과 언론매체의 기능은 1:1로 서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의 다양한 언론기능들을 수행하도록 편집된 언론매체의 기본내용들은 북한의 대표적 신문인 로동신문의 지면에 잘 반영되어 있다. 총 6면 가운데 신문의 성격과 당 일호 신문의 편집중심을 집중적으로 표현하는 1면에는 정치관련 보도를 주로 실는다. 정치면인 1면에는 김일성 부자의 혁명활동과 관련된 공식보도와 주요문헌들이 편집되며 당의 방침해설과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사설과 전투적 구호, 그 날의 중요보도들을 실는다. 1면(정치면) 다음으로 중요한 2면은 정치적 성격의 자료를 취급하는 정치교양면이다. 따라서 로동신문의 1면과 2면은 정치사상 교양자료를 주로 실어서 사상교양자적 기능(정치사상선전)을 주로 담당하며, 3대혁명 가운데 사상혁명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3면은 경제면으로서 호소성과 선동성이 강하게 부각되도록 편집하고, 4면은 공산주의교양과 행사보도를 주로 취급하는 문화면(공산주의교양면)이다. 따라서, 로동신문의 3면과 4면은 경제 및 문화 교양자료를 실어 각각 조직 동원자적 기능(경제선전)과 문화 교양자적 기능(사회문화선전)을 담당하며,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5면과 6면은 각각 남한정세면과 국제정세면으로서, 정세교양자료(정세선전)를 많이 취급하여 주장이 강하게 드러나며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세력들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도록 호소성과 선동성을 강화하여 편집한다. 따라서 로동신문의 5면과 6면은 정세교양자료를 실어서 대적투쟁 및 대외선전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며 사상혁명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엄기영, 1989, 106~107).

북한언론매체에는 남한언론매체들이 즐겨 취급하는 사건·사고기사(사회면 기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미지를 제고하는 '기업광고'나 소비자에게 구매심리를 자극하는 '상품광고'가 없는 것이 커다란 특징이다. 이에 따라 북한언론사 조직에는 남한에서 중시하는 '사회부'나 '광고국'이 없다. 그러나, 선전·선동을 중시하는 북한 언론매체에는 남한과는 달리 당력사교양부, 당 생활부, 사회주의교양부 등이 있다.

북한언론이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이룩하는데 기존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집중 부각시키는 사건·사고기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했다. 반면, 긍정적 모

범을 통한 감화교양이 북한 실정에는 어울린다고 생각하여 공정감화기사를 개발하고 있다. 한편, 상품광고와 기업광고는 원칙적으로 취급하지 않지만, 평양신문 4면에 가끔 특정 백화점에 새로 입하된 상품이나 일용품을 소개하는 광고가 게재되거나 극장(영화관 포함)의 프로그램 안내를 싣는 경우가 있다. 북한에선 제품소개광고의 경우 '경제교양자료'의 하나로 취급하고, 극장(영화관) 안내광고의 경우 '문화교양자료'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 최근 평양역 광장에 마련한 옥외광고탑에 <평화자동차 기업광고>를 실시하여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탈리아 피아트 자동차 부품을 들여와 조립(승용차 뼈꾸기, 봉고차 휘파람)하는 평화자동차는 통일교와 북한당국이 합자해서 만든 자동차 조립공장으로 평양과 가까운 남포에 있다.

북한의 언론학자들은 정치사상 교양자료를 필두로 하여 경제·문화·정세 교양자료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정치사상 교양자료'는 가장 중요시하는 내용이다. 이 교양자료는 ① 당과 수령의 혁명활동 보도자료(김일성 부자의 고전적 노작·당문헌관련 보도자료, 당·국가 사업지도관련 보도자료, 대외활동 보도자료), ② 당원·근로자대상 사상교양자료(김일성의 혁명사상·당노선·혁명전통에 대한 사상교양자료), ③ 당 건설·활동 보도자료, ④ 일반정치 보도자료 및 국내외 정치행사 보도자료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된다.

두 번째는 '경제교양자료'로서 ① 당의 경제정책 해설·선전 보도자료, ② 경제건설투쟁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는 보도자료, ③ 과학기술 선전자료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김영주·이범수, 1999, 158~160). 세 번째는 '문화교양 자료'로서 ① 사회주의 문화건설노선·방침관련 해설·선전자료, ② 문화건설 분야의 성과·경험관련 선전자료, ③ 근로자들의 일반상식·문학예술적 소양 제고자료 등 3가지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정세교양자료'로서 ① 남한정세자료, ② 국제정세자료 등 2가지로 구성된다. 우선 '남한정세자료'는 ① 남한의 김일성부자 및 조선노동당에 대한 흠모자료, ② 주체사상 학습자료, ③ 통일투쟁자료, ④ 반미·민주화·생존권을 위한 투쟁자료, ⑤ 미일제국주의자들의 만행폭로자료, ⑥ 해외동포들의 반미·반한 투쟁자료, ⑦ 민주화 운동자료 등을 다양하게 취급한다.

'국제정세자료'는 ① 세계인민들의 김일성부자에 대한 흠모자료, ② 투쟁성과 소개자료, ③ 국제공산주의운동 투쟁자료, ④ 신흥국가·발전도상국가의 새생활 투쟁자료,

⑤ 자본주의국가의 노동운동자료, ⑥ 제국주의국가의 음모·죄행 폭로자료 등을 다양하게 취급한다(김영주·이범수, 1999, 167~170).

한편, 북한당국이 2000월 6월 개최된 남북한 정상회담 직후 얼마동안 로동신문(남조선 정세면)과 평양방송, DMZ확성기방송(2004년 남북한 동시 철거) 등에서 남한에 대해 실시하였던 비방·비난·모략 선전활동을 자제하였다. 남한을 자극하는 악평어(예컨대, 괴뢰통치배, 미제앞잡이, 파쇼군사독재 등) 대신 대통령, 국군 등 남한의 공식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실보도 위주로 전환한 바 있었다.

최근의 로동신문(2018. 9. 15.; 9. 25.; 10. 28.; 10. 30.; 10. 31.; 11. 7.자)을 살펴보면, 기존의 관행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로동신문 제호의 오른쪽 슬로건이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하자!”라는 **경제슬로건**이었다. 이전에는 **정치·사상** 관련 슬로건이 주류였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로동신문의 **1면**은 정치·사상면이었지만, 요즈음 6~7건의 경제관련 소식으로 도배를 하거나 3건 이상의 경제소식을 꾸준히 올렸다. 경제면이었던 **3면**은 관행대로 경제소식을 실어 경제면이 사실상 크게 늘어난 것이다. 남한정세면이었던 **5면**은 남한소식을 거의 실지 않는 대신, 과학·기술·교육·의료·산림 등의 분야에서 일어나는 긍정감화교양자료, 계급교양자료, 혁명전통교양자료 등을 실어 ‘공산주의교양면’인 4면의 연장으로 여겨졌다. 국제정세면인 **6면**에는 국제소식과 더불어 2~3건의 남한소식(민노총의 시위, 자유한국당 비판, 5·18 당시 계엄군 성폭행 폭로, 남측 민화협 방북소식 등)을 **비교적 단신**(논평, 논설, 단평 등의 의견기사에서 보도기사 형태로 전환)으로 처리하여 남한소식을 대폭 줄였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런 현상들이 굳어질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3. 대남언론보도(남한정세자료)의 구체적 내용

로동신문의 대남보도 논조를 깊이 있게 분석하기 위해선 위에서 상술한 내용 가운데 특히, 남한정세자료에 대한 북한당국의 인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당국은 ‘남한정세자료를 잘 취급하는 것은 북한신문의 기본임무로부터 언제나 중요한 임무로 나선다’고 전제하면서, **김일성 교시**(“남조선 정세를 연구하여 그것을 군중에게 널리 알려주는 것은 비단 남조선 근로대중을 정치적으로 교양, 계몽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만 아

나라 북반부 인민들에게 우리 혁명의 기본과업을 철저히 인식시키며 그들의 혁명적 경각성과 계급적 의식을 높이는데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0권, 303)까지 인용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인식과 함께 사회주의혁명에 대한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고 세계여론을 그들 쪽으로 유리하게 전변시킬 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된다고 인식하였다.

남한정세자료의 중요성에 대한 북한당국의 인식은 김일성종합대학 신문학과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신문학 개론』(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9)의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김영주·이범수, 1999, 163~167). 남한정세 자료의 취급은 우선적으로 남한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 그들 신문들 앞에 나서는 기본 임무로부터 제기되는 혁명과업이다. 따라서 북한신문은 남한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적극 해설, 선전하며 남한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각성시키기 위한 자료들을 잘 취급하는 것과 함께 남한정세자료들을 제때에 반영하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북한신문들이 **선차적**으로 관심을 돌려야 하는 것은 이른바 ‘위대한 수령(김정일 포함)과 조선로동당에 대한 남한인민들의 흠모자료,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선군사상 포함)을 적극 따라 배우고 그 기치 밑에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싸워나가고 있는 투쟁자료들’이라고 천명했다. 북한은 이런 형태의 기사를 **‘당과 수령에 대한 위대성 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충실성 교양자료’**라고 칭한다.

북한의 언론학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존함은 오늘날 남한인민들 속에서 인민대중을 묶어세우는 단결과 투쟁의 기치로 되고 있으며 수령님과 우리 당의 영도적 권위는 거대한 견인력과 감화력, 추동력을 지니고 있는 까닭에 김일성 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따르며 우리 당을 민족의 향도성으로 끝없이 흠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신문에서는 남한혁명가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주체사상(선군사상 포함)을 따라 배우며 김일성 부자와 조선로동당의 혁명역사와 혁명업적, 영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에 대해 감복하면서 끝없이 흠모하는 자료들을 소개, 선전하는데 응당한 힘을 넣고 있다는 것이다(김영주·이범수, 1999, 164).

두 번째 남한정세자료의 중요한 내용은 남한인민들의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생존의 권리를 위한 의로운 투쟁에 대한 자료들이다. 북한 언론학자들은 “정세발전에서

주동적 역할을 하는 것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인민대중, 정의와 진리의 편에 서있는 혁명역량이다. 그런 까닭에 혁명역량의 장성강화와 그들의 투쟁소식을 시의성 있게 기동적으로 소개, 선전 하는 것은 그들의 투쟁을 고무하며 북반부 인민들을 교양하는데도 큰 작용을 한다”고 인식하였다.

세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남한에서 미일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감행하고 있는 범죄적인 책동과 야수적 만행을 폭로하는 자료(미일제국주의 만행폭로자료)들이다. 남한정세와 관련한 보도에서 기본은 미제침략자들의 ‘두 개 조선’ 조작책동과 새로운 전쟁도발 책동에 대해 폭로, 단죄하는 것이다. 그것은 미제가 남한에 군림하는 실제적 통치자이며 남한혁명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북한신문은 남한정세 자료를 취급함에 있어 공격의 화살을 미제침략자들에게 집중하게 된다. 그리하여 남한의 식민지군사 파쇼통치의 장본인인 미제가 교활하고 악랄한 신식민주의 수법으로 식민지통치를 계속 부지해가며 우리 민족분열의 영구화를 꾀하며 조선에서 또다시 전쟁의 불집을 일으키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는데 대한 자료, 미제가 백여 년 전부터 조선을 침략해 온 범죄적인 역사와 결부하여 그들이 오늘 남한에서 감행하고 있는 야수적 만행자료 등을 구체적 사실적 자료들에 기초하여 취급함으로써 미제침략군을 남한에서 몰아내는 것이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초점으로 된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할 수 있게 한다.

남한정세보도에서 미제와 함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재침략책동 자료(미일제국주의 재침략책동자료)들을 잘 취급하는 것도 북한신문의 반영내용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것은 일본군국주의가 미제의 손아래 동맹자로서 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실현할 시대착오적 망상 아래 또 다시 남한에 침략의 검은 마수를 뻗치고 있으며 남한 괴뢰도당을 적극 부추겨주고 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북한신문은 미제를 등에 업고 남한에 재침의 마수를 뻗치고 있는 일본군국주의의 범죄적 음모책동, 침략과 약탈 행위를 결음마다 폭로함으로써 북한인민들을 각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북한신문의 정세보도자료 취급에서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미국과 일본의 이중주구인 남한 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이며 반인민적인 죄행과 음모책동을 철저히 폭로하는 자료들이다. 남한 괴뢰도당의 반동적·반인민적 죄행과 매국배족적인 음모책동자료들에 대한 취급은 북한인민들로 하여금 남한 괴뢰정권이 미제의 남한강점과 식민지정책을 가

리며 침략정책을 집행하는 위장물에 지나지 않으며 매국정권, 예측정권, 지주·매판자본가·반동관료배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반인민적 정권이라는 것을 철저히 발가벗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책동에 경각성을 높이며 외세를 몰아내고 남한의 괴뢰파쇼 통치배들을 소멸시켜야만 남한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통일위업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북한 신문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 남한 괴뢰도당의 죄행과 음모책동을 폭로, 단죄함에 있어 시의적절하게 사실적으로 폭로하는 자료와 원리적으로 폭로하는 자료를 배합하여 취급하는 방향을 취한다.

마지막으로 남한정세와 관련된 보도에서 북한의 구체적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특수하게 해외동포들의 반미·반한 투쟁자료, 반파쇼민주화운동자료 등도 취급한다. 그것은 해외동포들의 투쟁이 남한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체 조선인민의 투쟁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남한 정세자료는 조국통일부(구명칭: 남조선부)와 논설원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광명백과사전7>(579)에서는 앞에서 5가지로 열거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4가지로 정리하였다. 즉, “① 위대한 김일성 부자를 높이 우러러 흠모하며 선군의 기치높이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있는 북한을 동경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민심을 적극 소개 선전하며 ② ‘우리민족끼리’의 이념 아래 조국통일을 앞당겨나가기 위한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의 투쟁소식을 널리 보도 선전한다. ③ 남조선 각계각층 인민들의 반미자주화, 사회민주화를 위한 투쟁자료를 싣고 ④ 남조선의 우익보수세력, 친미친일 사대주의자들과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폭로 단죄한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김영주가 이명박 정권 시기(2008. 2~2010. 1) 로동신문의 대남 보도를 분석한 논문(104~105)에 따르면, 조국통일실천촉구자료(19.9%)를 필두로 당·수령흠모자료(15%), 미일재침략책동자료(14.9%), 생존권리투쟁자료(13%), 반미자주화투쟁자료(10.7%), 반파쇼민주화투쟁자료(9%), 반통일인사 비판자료(7.6%), 남측반인민죄행폭로자료(6.6%), 재난비리보도자료(3%), 일반인교류협력자료(0.3%)의 순이었다. 시기별로 구분하면, 제1기(정권인수기; 2008. 1. 1~1. 30)에 통일문제와 군사문제, 제2기(대통령취임초기; 2. 25~3. 25)에는 군사문제와 친북흠모, 제3기(촛불시위기; 7. 13~8. 11)에 파업·시위소식과 외교문제, 제4기(북한미사일 발사·핵실험기; 2009. 4. 29~5. 28)에 정치문제와 통일문제, 제5기(남북정상회담 추진기; 2010. 1. 1~1. 30)에는 통일문제와 파업·시위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북한식 표현으로 기술하면 제1기에는 조국통일실천촉구자료와 당·수령흠모자료, 제2기에는 미일재침략책동자료와 당·수령흠모자료, 제3기에는 생존권리투쟁자료와 당·수령흠모자료, 제4기에는 반통일인사비판자료와 조국통일실천촉구자료, 제5기에는 조국통일실천촉구자료와 당·수령흠모자료를 비중 있게 취급하였다. 긍정적 묘사는 당·수령흠모자료(4.81), 중립적 묘사는 조국통일실천촉구자료(2.68), 나머지는 부정적 묘사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 당시 로동신문에서 비중 있게 취급한 인물/단체는 이명박 대통령·청와대·국무총리 등을 필두로 남측겨레, 남한당국, 통일운동단체, 언론인, 진보시민단체 등의 순이었다. 제1기에는 한민족/남북겨레, 남측겨레, 통일운동단체 등을, 제2기에는 통일운동단체, 남측겨레, 군인/군부를, 제3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청와대, 통일운동단체를, 제4기에도 이명박 대통령 등과 통일운동단체를, 제5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일체 거론하지 않은 채, 특별히 거론되지 않던 진보시민단체와 남한당국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취급대상 인물/단체에 대한 묘사에서 부정적 묘사(5점 척도)가 가장 높은 시기는 제3기(2.29)이며, 제5기(2.41), 제4기(2.49), 제2기(2.80), 제1기(3.43)의 순이었다. 제5기에는 이명박 정부나 대통령 개인에 대한 원색적 비난은 자제하는 편이었지만 개괄적 차원에서 여타의 등장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부정적 묘사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악평어’(bad label)를 가장 다양한 형태로 붙이고 있는 기사형태는 ‘조국통일실천촉구자료’였다. 조국통일문제는 로동신문에서 가장 핵심적·중점적으로 취급하는 문제로서 남한의 집권세력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악평어를 양산해 왔다. 가장 주요한 단어(key word)는 ‘호전’, ‘분열’, ‘반통일’, ‘친미’, ‘파쇼’, ‘괴뢰’, ‘반역’ 등이다. 이와 함께 현직 대통령의 실명에 다양한 악평어(예컨대, 역도, 패당, 일당, 역적도당, 역적패당, 보수패당, 괴뢰정권, 매국역적 등)를 붙여 사용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다양한 악평어를 사용하는 것은 반미자주화투쟁자료였는데, 주요 단어(key word)는 ‘친미·사대·매국’, ‘강점’, ‘미제’, ‘호전’ 등이었다. ‘반미’라는 관점에서 미일재침략책동자료에도 유사한 악평어를 사용하였는데, 주요 단어로는 ‘미제’, ‘침략군’, ‘호전’, ‘제국주의’ 등이 있었다. 민생권리투쟁자료에는 주로 시위진압경찰이나 수사검찰 등公安당국에 대한 비판적 용어가 즐겨 사용되고 있었는데, 주요 단어는 ‘파쇼’, ‘괴뢰’ 등이었다. 제3, 4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다가 제5기에 이르러 크게 자제하는 분위기였다(김영주, 2010, 115~117).

Ⅲ. 북한관련 보도의 문제점

북한보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80년대 말 세계사적 변화조류와 이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유동화에 능동적·주체적 대응'이 긴요해지던 **1989년 11월**, 한국기자협회가 <분단극복을 위한 언론의 역할 세미나>를 열고 '북한관련 보도의 문제점'(전택원 ; 중앙일보 외신부 차장)을 지적한 것으로 보아 그 연원이 무려 30여 년 되었다. 여기서 그는 "1989년을 기점(1988년 12월 <서울신문>에서 처음 실시하였고 다음해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됨 / 1990년 소련 붕괴, 동서독 통일)으로 일부 언론사에서 '북한부(통일부, 민족국제부 등)'를 별도부서로 설치하였지만, 1~2명의 전담기자로는 북한보도의 내용을 충실 하게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남북 간 기자 교류의 시급함과 함께 북한전문기자의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1991년 12월**, 남북한 간에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되자 한국언론연구원(연구자: 김정탁 성균관대 교수, 안춘옥 KBS 방송연구원 연구위원, 정용준 서울대 박사과정)에서는 <남북통일과 언론>('통일문제 보도에 대한 남북한 언론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이라는 보고서를 펴냈다. 안춘옥(1991, 221~224)은 보고서에서 남북한 간 통일지향적 보도를 위해 ① 남북한언론보도 공동 위원회의 설치, ② 언론인의 교류 및 상주특파원을 통한 자유로운 취재활동 보장, ③ 국가보안법의 개정, <북한 및 공산권 국가에 대한 보도요강>의 철폐와 북한 형법의 폐지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김대중 정부가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던 **2000년 봄**에 이르자 한국언론재단과 한국방송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남북화해시대 남북언론보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찰한 바 있으며, 올해 들어 문재인 정부가 제2차, 제3차 정상회담을 진행하자 예외 없이 관련학회나 언론인들은 비슷한 주제의 발표를 하기 시작했다.

김영옥·김택환(2000, 47)은 남북문제 보도의 체계적 접근을 위해 미디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저널리즘 행위주체(언론인), 행위전략(보도 관행), 행위목표(언론사), 행위규범(사회·정치 권력)으로 나누고 각 차원별로 보도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지금도 설명력이 있는 이 분석을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표 2> 참조).

〈표 2〉 미디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별 남북문제 보도의 문제점

구조적 원인	차원	구성요소	남북보도의 문제점
① 저널리즘 행위주체 (언론인)		◦ 직업에 대한 자기이해 ◦ 직업의 동기 ◦ 세계관 ◦ 전문지식 ◦ 내재화된 규범	◦ 북한에 대한 부정적 태도 ◦ 기자의식 결여 ◦ 윤리의식 결여 ◦ 체제 우월감 ◦ 전문성 결여
② 저널리즘 행위전략 (보도관행)		◦ 뉴스가치 ◦ 취재방법 ◦ 정보원과의 관계 ◦ 기사작성방법	◦ 경쟁적 보도 ◦ 선정주의 ◦ 냉전적 흑백논리 ◦ 부정확한 보도태도 ◦ 정보원의 신뢰도 결여
③ 저널리즘 행위목표 (언론사)		◦ 경제적 요구 ◦ 권력적 요구 ◦ 조직적 요구	◦ 상업주의 ◦ 안보상업주의 ◦ 북한문제에 무관심 ◦ 북한전문부서 결여 ◦ 북한에 대한 부정적 태도 ◦ 반공주의(냉전적 사고)
④ 저널리즘 행위규범 (사회·정치 권력)		◦ 법규 및 제도 ◦ 정치문화 ◦ 사회적 가치(이데올로기)	◦ 국가보안법을 통한 언론통제 ◦ 국가안보 명목의 언론통제 ◦ 북한관련 정보의 정부독점 ◦ 반공주의·냉전적 흑백논리 ◦ 통일비용론, 조기통일론
결과	가치	보도내용의 문제점	
① 저널리즘의 객관성		◦ 감상적·감정적 보도 ◦ 지엽적 사안에 대한 가십성보도 ◦ 핵심내용 간과 ◦ 오보(때로는 허보<가짜뉴스>) ◦ 왜곡·확대 보도 ◦ 미확인보도	
② 중요성(가치)		◦ 전문성 결여로 인한 부정확한 보도 ◦ 남북 간 긴장을 조장하는 보도 ◦ 북한의 부정적 측면 강조 ◦ 지배이데올로기의 확대 재생산	

여기서 연구자들은 남북문제 보도의 개선을 위해선 남북문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의견에 대한 논의가 자유롭게 진행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해야 되며, 자유로운 정보교류를 막고 있는 법규와 제도를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금의 채용시스템과 인사시스템으로 북한전문기자 양성이 어렵겠지만, 언론사 산하에 있는 북한·통일연구소 구성원들과의 연계를 통한 ‘전문화’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2018년 5월 26일,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열린 ‘2018년 한국언론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김창룡 교수(인제대학교 신문방송학과)는 **북한보도의 오보유형**을 몇 가지로 정리해 발표했다. 첫째, 국정원의 발표를 일방적으로 받아 오보가 되는 유형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5년 국정원은 국회 정보 위원회 비공개 현안보고에서 인민군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고사충으로 처형당했다고 밝히자 언론이 대대적으로 받아썼다. 보도 다음날 그는 조선중앙TV에 모습을 드러냈고, 심각한 오보를 낸 언론들은 하나같이 정정·사과 보도 등을 일체 하지 않았다.

둘째, 소문을 근거로 추측성 보도를 내놓고 특종 내지 단독이라 쓰는 보도형태이다. 대표사례는 1986년 11월 16일 조선일보가 1면 4단 기사를 통해 ‘김일성 주석 사망설’을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주말의 동경 급전…본지 세계적 특종”이라는 보도까지 내보냈다. 낙종했다는 낭패감에 빠진 여타 언론사들은 휴간일인 11월 17일 호외를 통해 ‘열차에서 총 맞았다’, ‘폭탄에 당했다’, ‘쿠데타’ 등 미확인 보도들을 쏟아냈다. 며칠 뒤 평양의 순안공항에서 몽고 주석을 맞이하는 김 주석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해프닝은 끝났다. 이 외에도 조선일보의 ‘성혜림 망명설’, ‘현송월 단장 처형설’, 2014년 9월경 김정은 위원장이 40일 가량 모습을 보이지 않자 모 언론사의 ‘평양 계엄령 선포설’, ‘정신병설’, ‘김여정 대리통치설’ 등의 오보를 다양하게 냈다.

셋째, 일부 외신(러시아, 일본, 미국 등)을 인용함으로써 오보가 된 사례도 있다. 지난 1994년 2월 15일 경향신문은 “북한이 이미 핵폭탄을 제조했으며 아프리카에서 실험까지 마쳤다”며 러시아 안보전략연구소 고문 블라디미르 쿠마초프의 발언을 전한 일본 지지통신과 프랑스의 AFP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하지만 그는 “단지 러시아 언론과 일본 언론에 보도된 사실 등을 보고 개인적인 의견을 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넷째, 연합뉴스가 북한 오보의 진원지가 된 사례도 있다. 지난 2013년 4월 4일 연합

은 “북, 개성공단 입주기업협회에 ‘10일까지 전원 철수’ 통보”라는 기사를 냈고, 대부분 언론들이 연합뉴스를 받아 보도했다. 하지만 사실은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협회에 10일까지 통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북한 보도 오보가 발생한 이유로 △일부 탈북자와 소식통이 하는 말을 그대로 기사화하기 때문 △오보가 나와도 북한에서 항의를 하거나 소송을 당하지 않기 때문 △자극적인 보도로 페이지뷰를 올리려고 인터넷 뉴스 속보팀들이 마구잡이로 받아쓰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보도의 오보 공통점으로 “북한을 악마화, 범인화, 범죄집단화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북한을 미화나 옹호할 필요도 없지만 언론이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 결국 국내 언론이 북한에 관한한 공정한 보도, 진실한 보도에 얼마나 무책임했던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선 2015년(광복 70주년) 8월 10일, 남한의 언론인들과 언론학자들은 서울 소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 모여 <남북관계 보도 이대로 좋을까-KBS와 조선일보 보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북한관련 보도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이용마 MBC 해직기자가 지난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최근 조선일보의 북한보도 128건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이 출처나 근거를 알 수 없는 익명의 북한 소식통을 인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유령기사’와 함께 탈북자나 재중 북한인들의 증언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기사의 신뢰성이 극히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IV. 결론 : 남북한 언론 보도관행의 극복 가능성

남한언론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나 사건을 뉴스중심으로 보도하는 객관적·사실 보도적 저널리즘(보도성 중시)을 지향한다면, 북한언론은 조선로동당의 노선이나 정책을 의견중심으로 논평·해설하는 설득적·주의주장적 저널리즘(정론성 중시)을 지향한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그들의 언론을 한마디로 ‘예리하고 전투적인 사상적 무기’로 규정하고 있다.

남한언론이 기사의 질을 결정하는 속성으로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북한언론은 정론성, 혁명성, 호소성, 통속성(대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확성과 객관성이 특정한 당이나 계급에 기울어지지 않는 불편부당성

(무당성, 초당성, 초계급성)을 기본바탕으로 삼고 있다면, 정론성과 혁명성은 노동자·농민 계급의 편에 서서 당과 계급적 입장을 예리하게 천명하는 당성(계급성)을 기본바탕으로 삼고 있다.

남북한은 기사형태를 보도적인 기사(보도기사), 사논설(해설·처방 기사), 연문기사(피처기사)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기사의 사전적 개념정의는 남북한이 비슷하지만, 기사의 기능과 역할, 형태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드러냈다. 남한언론의 기사들이 '주요한 정보제공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면, 북한언론은 김일성 부자의 덕성과 영도력을 선전하고 북한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위력한 사상적 무기'로 기능한다. 따라서, 남한언론은 스트레이트성 보도기사가 다양하게 발전하였다면, 북한언론은 사논설류의 일종인 정론과 논평, 연문기사인 덕성기사나 영도기사, 긍정교양기사 등이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남한언론인이 객관적 사실을 신속하게 알려주는 '정보전달자'나 정부기관의 권력남용과 비리를 감시하는 '정부감시자'(과수견), 정부시책에 대한 '건설적 비판자'라고 한다면, 북한언론인은 사상전선의 전초선에 서있는 '당의 붉은 문필전사', 당정책의 적극적인 '옹호자·선전자·관철자'(보호견),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이론적으로 옹호보위하는 '친위대·근위대'이다.

북한에서는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레닌 및 김일성의 3대 언론기능론을 5대 언론기능론 즉 ① 사상교양자적 기능(대내적 선전선동활동), ② 문화교양자적 기능(대내적 문화활동), ③ 조직동원자적 기능(대내적 조직활동), ④ 대적투쟁·대적 언론전의 무기로서의 기능(대남적 선전선동활동), ⑤ 대외선전과 외교수단으로서의 기능(대외적 선전선동활동) 등으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북한언론의 기능론은 자본주의 사회의 언론기능론(① 환경감시기능, ② 사회조정기능, ③ 문화전수기능, ④ 오락기능, ⑤ 광고기능)을 가지고 있는 남한 언론과 매우 다르다. 이러한 남북한의 기능론 차이는 언론내용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물론, 최근에 들어 북한당국은 '보도적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 그네들의 언론기능론을 약간 수정(보도적 기능, 사상교양자적 기능, 조직동원자적 기능, 대외 선전적 및 외교적 기능, 대적 언론전의 기능)한 바 있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한 언론은 매우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언론학자인 허버트 알철(1991, 371~391)은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

그는 그의 저서 『The Agent of Power』(국문번역; 강상현·윤영철, 『지배권력과 제도 언론』)에서, “자본주의·사회주의·제3세계 체제 하의 모든 언론들은 결국 지배 권력에 장악되어 있는 까닭에 그들의 **계급이익을 확대 재생산하는데 기여하는 이념적 도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어떤 체제 하의 언론이라도 그 기능과 역할이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단언하였다. 이처럼 남북한 언론을 미시적 관점에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두 언론 역시 **‘통치계급의 이익을 확대 재생산하는 이념적 도구’**라는 기능을 똑같이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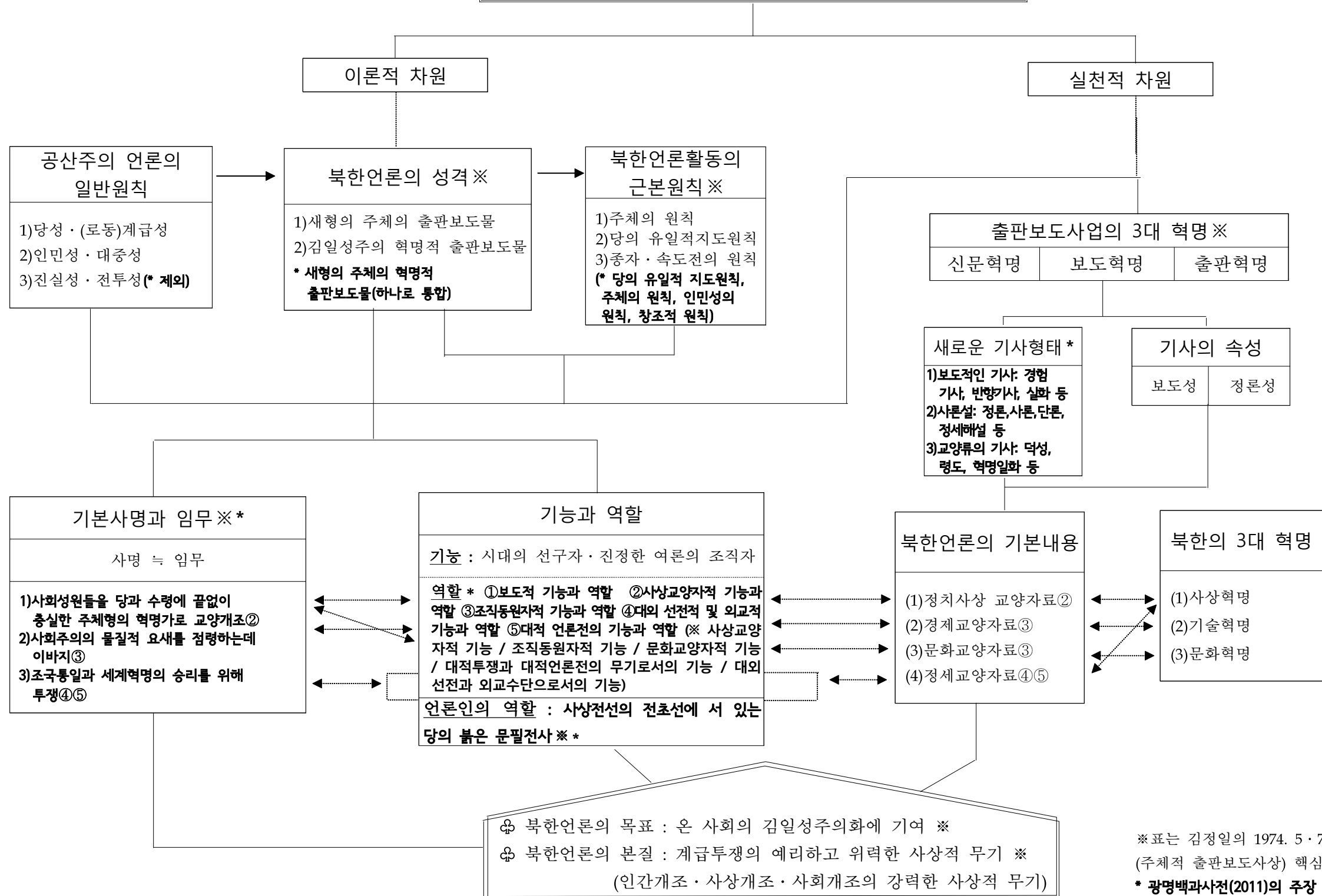
이용마 기자는 2015년 북한에 대한 공식 취재 루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자 개인이 북한을 자유롭게 취재 할 수 있는 사회적·법적 여건도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나마 북한보도 관행의 현실성 있는 극복방안으로 **‘전문기자제도’의 도입과 ‘북한보도준칙’의 이행**을 제시하였다. 이 보도준칙은 전국 언론노동조합연맹,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등의 언론단체들이 **광복 50주년(1995년)에** 공동으로 <평화통일과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 준칙>**(총강: ① 우리는 대한민국(약칭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약칭 조선)으로 나뉘어진 남과 북의 현실을 인정하며, 상호존중과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상대방의 국명과 호칭을 있는 그대로 사용한다. ② 우리는 냉전시대에 형성된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보도·제작함으로써 남북 사이의 공감대를 넓혀 나간다. ③ 우리는 남북관계 보도·제작에서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애를 타파한다. ④ 우리는 남과 북의 우수한 민족문화 유산을 공유하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기사 및 프로그램 개발에 힘쓴다. ⑤ 우리는 통일문제에 관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하여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한다. 보도실천요강: ① 남북 긴장해소 노력, ② 인물 호칭·직책 존중, ③ 관급자료 보도 유의, ④ 내외통신 인용 책임, ⑤ 외신보도 신중 인용, ⑥ 1차 자료 적극 활용, ⑦ 각종 추측보도 지양, ⑧ 사진·화면 사용 절제, ⑨ 회화적인 소재 지양, ⑩ 망명자의 증언 취사. 제작실천요강: ① 정보제공 적극 편성, ② 통일지향 가치 추구, ③ 냉전시대 관행 탈피 ④ 상업·선정주의의 경계, ⑤ 다원주의 가치 반영, ⑥ 보도활용 제작 신중, ⑦ 생활문화 적극 소개, ⑧ 능동적인 자료 접근, ⑨ 남북 차이 이해 노력, ⑩ 남북 동질성의 부각)**이라는 이름으로 마련한 것이었다.

이 준칙은 1988년 9월 문공부가 마련한 <북한 및 공산권 국가에 대한 보도요강>**(북한에 대한 보도기준: ㉞ 언론기관이 자율적으로 보도하지 않아야 할 사항: ① 북한 및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거나 정부의 대북한정책에 역행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사항, ② 남북한 정부 및 민간인사의 정치적·외교적인 비공식 접촉·교섭 및 교류 등 미공개사항, ③ 비밀로 분류된 북한관계자료, 통신·전자·사진정보 및 공작첩보 사항, ④ 기타 북한관련 보도내용이 국민의 안보의식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등 국익과 안보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㉟ 문공부와 사전협의 후 보도할 수 있는 사항: ① 남북한 관계에서 북한공산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인식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② 언론기관이 북한의 선전 등 특수**

목적에 의해 제작·공포된 사항인지 또는 국익과 안보에 저해되는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 ③ 남북한 간의 동족동질성 회복에 저해되는 사항, ④ 북한 등 반국가단체에서 발행한 자료와 국민의 대북인식을 오도케 할 우려가 있는 **외국간행물 또는 외신**, ⑤ **정부당국이 제공한 이외의** 김일성, 김정일의 정사진 및 동사진 보도에 관한 사항. 이 요강을 준수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나 종사자에 대해 정부가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국가보안법, 형법 등 현행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과는 차원이 전혀 달랐다. 이 준칙에 이어 KBS가 1998년 <북한관련 보도 기본원칙>을, 2000년에는 남북정상 회담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보도준칙>을, MBC 역시 2008년에 7장으로 구성된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남측언론이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미래지향적 내용을 담고 있던 보도준칙들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물론, 북한을 객관성 있게 취재하려는 남측 언론인들이 이러한 준칙들을 어쩔사리 준수한다면 하더라도, ‘자유로운 통일논의 및 남북한 간 화해노력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국가보안법>(고무추동죄, 회합·통신죄, 금품수수죄, 잠입·탈출죄, 편의제공죄 등)의 존재와 함께 북한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의 태부족,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북한정보 독점, 보수적 언론인들의 냉전적 시각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는 당분간 어렵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 표 1 > 북한언론의 이론과 실천과의 연계도



참고문헌

- 김영옥·김택환(2000). 『남북문제 보도의 새로운 모색-독일사례가 주는 시사점과 함께』. 한국언론재단.
- 김영옥·황용석(2000). 『남북화해시대의 국민적 과제와 언론의 역할-전문가 심층설문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재단.
- 김영주(1998). 『현대북한 언론연구』. 마산 : 경남대학교출판부.
- 김영주(2010. 12). <로동신문>에 나타난 대남보도 논조분석 - 2008년 이후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0권 4호). 한국지역언론학회.
- 김영주·이범수편(1991). 『북한언론의 이론과 실천』. 서울 : 나남출판.
- 김영주·이범수편(1994). 『김정일시대의 언론이론과 정책』. 서울 : 한울아카데미.
- 김영주·이범수편(1999). 『현대북한 언론의 이해』. 서울 : 한울아카데미.
- 김일성(1968).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 - 작가, 작곡가, 영화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60. 11월 27일. 『김일성저작선집2』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궁정감화교양 주장)
- 김일성(1982). 출판사업과 학생교양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 - 출판보도일군 및 민청일군들과 한 담화. 1962년 5월 3일. 『김일성저작집16』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1992). 당대표자회 결정관철에서 출판보도물의 역할을 높이자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 및 기자, 편집원들과 한 담화. 1966년 10월 28일. 『김정일선집1』.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6> 표제어로 등재. 출판보도부문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는 강령적 문헌')
- 김정일(1994).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 - 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에서 한 결론. 1974년 2월 19일. 『김정일선집4』.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1994). 사설혁명을 일으킬 데 대하여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4년 2월 22일. 『김정일선집4』.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1994).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에 이바지하는 위력한 사상적 무기이다 -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제3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74년 5월 7일. 『김정일선집4』.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이른바 5·7문헌)**
- 김정탁·안춘옥·정용준(1991). 『남북통일과 언론』. 서울 : 한국언론연구원.

- 리응필(1979). 『신문기사론』. 평양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배순재 · 라두림(1967). 『신문리론』. 동경 : 재일본조선언론출판인협회.
- 알철, 허버트(1991). 강상현 · 윤영철역. 『지배권력과 제도언론』. 서울 : 나남.
- 엄기영(1989). 『신문학개론』. 평양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이기현(2002). 『남북화해시대의 방송저널리즘』. 서울 : 한국방송진흥원.
- 조형창 · 리준하(1982). 『신문학』. 평양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조형창 외(1984). 『기사집필수업(1)』. 평양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백과전서(1)~(6)』 (1982~1984).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조선대백과사전(1)~(32)』 (1995~2001). 평양 : 백과사전출판사.
- 『광명백과사전(7)』 (2011). 평양 : 백과사전출판사.
- 『출판보도사업에 대한 당의 방침해설』 (1985).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 『로동신문』 '65. 11. 2.; '71. 11. 1.; '74. 7. 16.; '76. 12. 1.; '80. 11. 1.;
 '85. 11. 1.; '86. 12. 1.; '90. 11. 1.; '93. 11. 20.; '95. 11. 1.; 2000. 12. 1.;
 2018. 9. 15.; 9. 25.; 10. 28.; 10. 30.; 10. 31.; 11. 7.자.